

慕竹旨郎歌의 性格攷

金 鍾 兩

序 言

1. 新羅의 花郎과 彌勒信仰
2. 竹旨郎說話와 慕竹旨郎歌
3. 彌勒說話와 本歌와의 關係

結 語

序 言

慕竹旨郎歌는 新羅의 鄉歌中에서 花郎歌로 꼽히는 것 中の 하나이다. 그래서 筆者는 지난날 本歌와 讚耆婆郎歌를 比論하여

本歌는 지난날의 部下였던 郎徒가 그때 上典이던 花郎을 追慕하는 노래 이었고, 後歌는 花郎의 善美함을 찬탄하는 노래이니, 兩歌는 다같이 恩義에 切實한 花郎의 모습과 精神을 기리는 郎歌라 하겠다.¹⁾

라고 하여 本歌는 花郎의 노래요 그 內容은 追慕의 念을 나타낸 晩歌의 인 것임을 隱然히 示唆한 바 있었다. 그리고 學界에서도 몇분이 이에 同意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김승찬님은 그의 「慕竹旨郎歌 新考察」에서 竹旨郎說話를 치밀하게 分析하고, 또 本歌의 創作年代도 文獻上으로 考證하여 本歌의 性格을 究명한 結果

1) 拙著: 鄉歌文學研究, p.167, 宣明文化社, 서울, 1974.

2 韓國文學論叢 第1輯

“慕竹旨郎歌는 竹旨가 逝去한 뒤 지어진 讀歌(挽歌·追慕歌)가 아니고 그의 生前에 得鳥谷이 지은 것으로 그 創作年代는 孝昭王初期일 것이다.”

라고 推定하였으며, 노래의 內容 구조는

“第1.2句가 追憶의 想起와 그 고통, 第3.4句가 人間의 有限性, 第5.6句가 만남의 祈願, 第7.8가 비유법을 통한 刻苦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²⁾

라고 內容을 分析하고 있다. 이는 있을 만한 推定이요 또 어느 程度 正鵠에 接近한 分析이어서 本歌研究에 있어 한 새로운 考察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本歌는 三國遺事에 실린 說話가 明確하지도 않고, 또 노래의 第4句인 「兒史年數就音墜支行齊」의 解讀에 있어서도 서로 異見이 있어, 이 時點에서 本歌가 竹旨郎의 生前의 것인가? 死後의 作인가 하는 것을 斷言하기는 急한 것 같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먼저 新羅의 初期에 있어서 花郎들은 미륵의 어떤 信仰과 관계가 깊었었나 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은 竹旨郎의 人物됨을 그 說話를 통하여 살핀 후, 慕竹旨郎歌의 性格內容을 考察하고, 끝으로 竹旨郎說話는 곧 미륵 說話인데 이것과 慕竹旨郎歌와의 相互關係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追跡하여 慕竹旨郎歌의 性格 研究에 있어서 한 方向을 探索해 보코자 한다.

1. 新羅의 花郎과 彌勒信仰

오늘날은 우리 社會의 各種佛敎의 信仰中에서 이 彌勒信仰은 가장 度外視되고 異端視하는 傾向이기도 하지만, 新羅에서는 過度할 만큼 貴族의인 信仰이기도 하여, 初期의 新羅佛敎를 王室化하는 데에 큰 役割을 했고, 그 中에도 三國統一의 主力이었던 花郎들에게는 아주 重要한 信仰의 對象

2) 荷西金鍾雨博士華甲紀念論叢, p.126, 第一文化社, 釜山, 1977.

으로 登場하였다.

新羅는 法興王 十五年에 佛敎를 처음으로 公認하면서, 興輪寺를 創建하고 이 절에 미륵尊像을 奉安하였으며, 그後 眞智王代에는 이 興輪寺僧인 眞慈가 미륵像前에 나아가, 「願我大聖 化作花郎 出現於世」³⁾ 하라고 祈願한 일로 보아, 花郎과 미륵信仰은 跬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알게 하거니와, 당시의 一部 佛僧들에게도 이 信仰이 그 어떤 것보다도 顯著한 信仰의 對象이 되고 있었다. 즉 生義法師는 미륵의 現夢에 依하여 南山洞谷에서 석미륵을 발굴함으로써, 거기에 절을 짓고 像을 奉安하니 이것이 生義寺의 緣起인 것이며, 葺長寺의 미륵은 大賢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는 異跡說話가 傳기도 하고, 元曉는 「彌勒上生經宗要」를 叙하여 彌勒의 敎說을 편바 있었지만, 大賢, 憬興들에게도 「彌勒經疏」를 撰하여 이의 敎旨를 밝히는 데 注力하였음을 본다. 이들 佛僧이 다 花郎과 밀접한 關係를 가졌던 사람들이라, 그들의 미륵에 대한 信心은 곧 당시 花郎들의 精神信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니, 花郎들의 精神的 歸依의 對象은 미륵이었을 것임을 알겠다. 이에 대한 보다 뚜렷한 例로써는 景德王代의 歌客이었다 할 忠談과 月明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먼저 忠談의 경우를 보면, 그는

王曰 朕嘗聞師讚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 王曰 然則爲朕作
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⁴⁾

라 한 바와 같이 讚耆婆郎歌라는 花郎의 노래도 지었고, 또 王을 위하여 安民歌를 읊기도 한 佛僧이다. 그런데 이이는 「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⁵⁾이라 하였으니, 每年 三月三日과 九月九日에는 南山의 三花嶺 미륵佛께 烹茶를 供養하는 미륵信者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事實을 相考해 보면, 忠談은 노래를 즐기던 花郎出身이면서, 또한 돈독한 미륵信者인 佛僧으로 신라 僧郎으로서의 그 存在性을 보여주는 資料인 동시에, 미륵信仰을 花郎들에게 傳播한 佛僧이었던 것이다.

3) 三國遺事 卷第二 塔像第四,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4)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5) 4)와 같음.

그리고 다음은 月明에 대해서인데, 그는 말하되,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閑聲梵⁶⁾

이라 하여, 스스로가 花郎徒에 속하는 身分임을 明言하고 있는데, 일찌기 梁柱東님도 말한 바와 같이 「日怪를 穰키 爲하여 彌勒佛을 邀致하는 노래」⁷⁾로써 兜率歌를 지었다 했거니와, 이 「二日並現」이란 國家的인 큰 日怪를 없애기 위하여, 그가 兜率天의 미륵佛의 힘을 빌었던 것이니, 그는 花郎이면서도 또 미륵佛을 철저히 信奉하던 代表的인 新羅의 佛僧이었다 할 만하다.

그러면 위와 같이, 新羅의 王公貴族을 위시하여 신라의 佛僧과 花郎들이 신앙하던 미륵이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첫째, 彌勒의 性格인데, 語源上으로 이 彌勒은 maitreya의 略語로 번역하여 慈氏라고 하며, 이 原語에는 厚意·友情·慈悲의 뜻이 있어, 즉 미륵은 慈悲로부터 出生한 者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彌勒은 現在는 兜率天에 있으나, 저금으로부터 五十六億七千萬年 후에는 이 世上에 下生하여 釋迦牟尼佛을 다음하여 成佛하고, 釋迦佛의 遺弟와 및 有緣衆生들을 三會에 걸쳐 說法救濟할 者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는 一生補處의 보살이기도 하며, 또한 未來의 佛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이이를 信仰케 되는 그 內容은 어떤 것인가? 이도 또한 彌陀淨土에의 往生을 念願하는 極樂思想과 마찬가지로, 佛教의 往生信仰의 一種이었다 하겠는데, 미륵의 性格으로 보아 現在 미륵이 居住하는 兜率天으로의 往生을 바라는 上生信仰이 있겠고, 將次 몇 億年후에 미륵佛이 出現할 當來世界으로 往生을 願하는 下生信仰이 있게 된다.

① 上生信仰——미륵보살은 現在 兜率天에 住한다. 兜率天은 六欲天⁸⁾中

6) 三國遺事 卷第五 月明師兜率歌條.

7) 梁柱東: 古歌研究, p. 504.

8) 欲界六天 1. 四王天 2. 忉利天 3. 夜摩天 4. 兜率天 5. 樂變化天 6. 他化自在天.

④ 兜率은 知足이라고 번역하며 이 第四天에는 「欲輕逸少, 非沈非浮, 莫葛於塵 故名知足」이라고 元曉는 「미륵上生經宗要」에서 말하고 있음,

의 하나인데 그곳에는 많은 기쁜 일만이 있고 특히 미륵보살이 常住說法하는 兜率天宮은 內院과 外院으로 규모가 갈라 있고, 外院에 住하는 者는 그 壽가 四千세이며 內院에서는 그 壽가 無量하고, 이 內院에는 또 四十九院이 있는데, 여기를 미륵은 說法의 道場으로 하고 있으며, 그곳의 極妙樂事는 이루다 形容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佛法을 信奉하는 末世중생은 이 곳에서 미륵에게서 道 배우기를 發願하면, 命終한 후 이곳에 태어나서 무궁한 福樂을 누리게 되고, 또 未來世에 미륵을 따라 人間界에 下降하여, 그의 說法을 듣고 다같이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② 下生信仰——이것은 當來할 教主로서의 미륵佛을 믿는 것이다. 미륵은 釋迦 다음에 이 世上에 와서 부처가 될 것이며, 모든 有緣衆生들을 濟度할 것이라 하는데, 그는 龍華樹 아래에서 法會를 三次에 걸쳐 開設하고 상당한 救濟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다.

當來彌勒 於此樹下 說法度人而有三會 初會先度釋迦所未度者 次度其餘 凡六十八億人 第二會六十六億人 第三會六十四億 故曰龍華三會⁹⁾

이때의 이 人間世界는 모든 罪惡과 苦痛이 없고, 오직 光明과 淨福만으로 莊嚴된 龍華의 佛國으로 化한다고 한다.

이 下生信仰이야말로 미륵이 釋迦佛의 다음에 올 繼承佛이라고 하는 點에서, 末世중생들의 歸依處가 될 만하고, 또 미륵佛을 이 地上佛國의 建設者라고 觀念하는 面에서, 이 미륵信仰을 成立케 하는 아주 具體的인 背景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新羅에서 미륵의 上生信仰도 많이 傳하는 바이지만¹⁰⁾ 특히 미륵과 花郎과의 관계에서는 위의 下生信仰이 더욱 顯著하였음을 본다. 즉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에 依하면 眞慈는 佛僧이면서 미륵이 花郎으로 化現할 것을 祈求하였고, 또 花郎으로 化現한 그 미륵을 仙花로써 모시었으며, 당시의 君王인 眞智王

9) 彌勒下生經.

10) 三國遺事 卷第三 洛山寺僧調信說話, 同卷第五 大城孝二世父母條 등 南白月二聖條.....

은 그러한 仙花를 찾는 眞慈에 대하여, 間接적으로 助言과 協力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로 보아 新羅初期의 佛敎에 있어서 미륵信仰과 花郎과 國王과의 관계는 띄어나 密着하였음을 알게 한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미륵을 믿게 되었던가? 미륵은 이 汚濁한 惡世가 漸漸 살기 좋은 世界로 化하고, 또 轉輪聖王과 같은 大王이 出現하여 올바른 政治를 行하여 理想的인 光明淨福의 國土가 成立될 때, 出現하는 佛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新羅에도 이러한 當來의 미륵佛이 出現할 때와 같이, 보다 살기 좋은 國土가 되고, 보다 明胡한 政治가 行하여지이다 하는 念願에서, 이것의 實行에 當할 花郎들을 激勵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新羅를 佛國土化할 當路者들을 위하여, 이들의 指導者로서 彌勒이 花郎으로 化現해 주기를 眞慈는 祈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新羅의 花郎은 眞慈와 같은 佛僧을 통하여 미륵의 下生佛로서의 意義를 알게 됐고, 國土를 淨化한다는 데에 신라인으로서의 矜持를 가지려고도 하였었다.

그러면, 이러한 花郎들 중에서 竹旨郎은 어떠한 人物이었으며, 또 그를 追慕하여 불렀다는 慕竹旨郎歌는 어떠한 內容의 것인가?

2. 竹旨郎說話와 慕竹旨郎歌

먼저 竹旨郎說話를 들어 본다.

第三十二 孝昭王代 竹曼郎之徒 有得鳥級干 隸名於風流黃卷 追日仕進 隔旬日不見 郎喚其母 問孺子何在 母曰 儻與李梁益宜阿干 以我子差富山城倉直馳去行急 未暇告辭於郎 郎曰 汝子若私事適彼則不須尋訪 今以公事進去 須歸享矣 乃以舌餅一合酒一缸 率左人而行 郎徒百三十七人 亦具儀侍從 到富山城 問闈人 得鳥失矣在 人曰 今在益宜田 隨益宜赴役 郎歸山 以所將酒餅饗之 請假於益宜 將欲借還 益宜固禁不許 時有使吏倪珍 管收推火郡 能節租三十石 輸送城中 美郎之重土風味 鄙宜暗塞不通 乃以所領三十石 贈益宜助請 猶不許 又以珍節舍知騎馬鞍具貽之 乃許 朝廷花主聞之 遣使取益宜 將欲洗其垢醜 宜逃隱 掠其長子而去 時仲冬極寒之日 浴洗於城內池中 仍合凍死 大

王聞之 勅學梁里人從官者 并合黜遣 更不接公署 不著黑衣 若爲僧者 不合入鐘鼓寺中 勅史上佩珍子孫 爲秤定戶孫 標異之 時圓測法師 是海東高德 以學梁里人故 不授僧職.

여기까지는 이 說話의 첫部分이라 하겠는데, 主로 孝昭王代는 어떠한 時代이었나 하는 것을 그린 것으로 되어 있다. 花郎인 竹旨는 자기의 무리인 得鳥에 대하여 사랑을 배풀되, 公과 私를 가리어 行하였지만, 당시의 官紀는 紊亂하여 益宣과 같은 부패한 官吏가 있어, 그의 善導를 방해키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王은 益宣과 同鄉인 벼슬아치까지도 그 職에서 물러나게 하였고, 이미 僧이 된 者라도 그 절에 들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僧이 되려 하는 者에도 禁令을 내리었다. 그리고 益宣의 暗塞不通함을 비루하게 여겨서, 得鳥를 故鄉으로 보내도록 請했던 佩珍의 子孫을 울리어서, 벼슬을 주고 그를 표창도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說話는 계속하여

初述宗公爲湖州都督使 將歸理所 時三韓兵亂 以騎兵三千護送之 行至竹旨嶺 有一居士 平理其嶺路 公見之敬美 居士亦善公之威勢赫甚 相感於心 公赴州理 隔一朔 夢見居士入于房中 室家同夢 驚怖尤甚 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 人曰 居士死有日矣 使來還告其死 與夢同日矣 公曰 殆居士誕於吾家爾 更發卒修葬於嶺上北峰 造石彌勒一軀 安於塚前 妻氏自夢之日有娠 既誕 因名竹旨 壯而出仕 與庾信公爲副帥 統三韓 眞德, 太宗, 文武, 神文 四代爲冢宰 安定厥邦¹¹⁾

이것은 위의 竹旨郎說話의 後半部이라 하겠는데, 前叙한 바와 같이, 이의 前半部는 竹旨郎이 自己의 무리인 得鳥에 대하여, 眞實한 情義를 배풀인과 더불어 當代의 孝昭王이 行政的인 措處를 善取하여, 世政을 바로 하였음을 말한 것이고, 이 後半部에 와서는 먼저, 初述宗公……安定厥邦까지에서, 竹旨郎의 誕生과 및 그의 行跡을 말하였고, 계속해서 다음은 初得鳥谷 慕郎而作歌曰 하고서 이 竹旨郎歌를 들고 있다.

11) 三國遺事 卷第二 孝昭王代竹旨郎,

이렇게 後半部の 說話는, 그 文段이 二회에 걸쳐 「初」字를 起點으로 하고 展開되어 있는데, 이 「初」에 대한 意味는 後述하겠거니와, 여기서는 먼저 위의 文章을 좀 풀어보기로 하겠다.

이전에 (初), 述宗公은 眞德王代 사람인데, 朔州都督使로 赴任하던 途中, 竹旨嶺에서 한 사람의 居士와 만났는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뒷날 어느날 꿈에, 그 居士가 자기의 居室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상히 생각했다. 그래서 공은 翌日 從者를 보내어 居士의 安否를 물었더니, 자기가 꿈을 꾸던 그 밤에 居士는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述宗公은 그 居士가 자기집에 托生한 것이라 생각하고, 居士의 葬禮를 厚히 해준 후 그의 墓前에 石彌勒像을 造立하였더니, 果然, 그날에 夫人은 妊娠케 되고 男兒를 誕生케 되었다. 이에 그의 이름을 竹旨郎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커서는, 官路에 나아가 庾信公과 더불어 三韓을 統一하는데 공헌하였고, 眞德, 太宗, 文武, 神文의 四代에 걸쳐 冢宰가 되어, 國家를 安定케 한 人物로 活躍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전에(初), 그의 部下이던 得鳥는 이러한 竹旨郎을 사모하는 노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說話는 竹旨郎의 本生譚의 一種이었다 하겠는데, 미륵의 下生思想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듯하다. 미륵下生經에 의하면, 미륵은 저 兜率天에서 이 娑婆의 下界를 내려보고, 자기가 生을 依托할 만한 父母를 定한 뒤에, 이땅으로 下生하여 그 國土를 教化한다는 說이 있기 때문이다. 위의 說話에서 竹旨嶺에서 述宗公과 만난 居士가 서로 마음이 통한 후에, 그 집에 托生하여 竹旨郎이 되었다는 것은 미륵下生經에서, 미륵이 자기의 父母가 될 人物을 미리 定하고서, 그 곳으로 下生한다는 것을 바로 轉寫한 것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壯成하여, 또 미륵의 信徒이었다 할 金庾信(이 이도 자기 徒名을 龍華香徒라 하여 미륵과 관련이 있는 명호를 使用하였음)의 麾下에서 副帥가 되어 統三의 大業에 盡瘁하였고, 眞德, 太宗, 文武, 神文등 四代에 걸쳐, 王을 도와 安定鄆邦케 했다 하니, 당시의 偉大한 政治人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同一한 下生說話中에서도 이 說話에서는 國土의 淨化보다도, 그 人物에 重點을 두었다는 데 이 說話의 特色이 있다 하겠다. 다같이 미륵

이 신라의 花郎으로 化現키를 願하는 것이지만, 未尸郎說話에서는 國土의 淨化를 위하여 그의 下生을 바랐는데, 이 竹旨郎說話에서는 미륵像을 造立함으로써 그의 化現을 믿는 人物中心의 미륵化現을 말하고 있다. 이 點이야말로 이 竹旨郎說話가 가지는 特點이라고 하겠는데, 신라初期의 미륵信仰은 그것이 미륵下生經에 依하는 信奉이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現實은 우리들 손으로 開拓한다는 극히 能動的인 下生信仰이 主軸을 이루었음을 보게 된다.

그런 意味에서, 이 說話에서 述宗公만 하더라도 공이란 말은 尊稱의 말 이겠고 「述宗」이란 말이 그의 名號인 듯한데, 意外에도 이이는 新羅에서 有名했던 四仙¹²⁾中의 一人인 述郎이 아닌가? 그러한 花郎이었기에 그는 居士의 墓前에도 미륵像을 造立하였고, 心中으론 그도 은근히 大聖인 미륵이 신라에 化現키를 빌었던 것이 아닐까.

어쨌건, 이 述宗公의 後嗣로 태어난 竹旨郎은, 위에서 보다시피 신라의 花郎으로서 政治人으로서 그 이름을 날린 人物이었고, 그의 背後에는 위의 本生譚과 같은 미륵의 下生信仰을 깔고 있는 神祕의 사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郎을 추모하여 불렀다는 노래는 어떤 것인가?

去隱春皆理米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烏支惡知作乎下是
 郎也慕理尸心米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간봄 그리매
 모든것사 우러시름
 아롬 나토샤은
 즈시 살쫂 더니저
 눈 돌칠 사이에

12) 四仙: 述郎, 永郎, 南郎, 安詳,

맞보옵지 것오리
 郎여 그릴 님스매 녀울길
 다투클형히 잘 밤 잇시리¹³⁾

本歌에 對하여는 지금까지에 그 作歌의 動機와 時期에 關한 異見으로 써, 竹旨郎이 逝去한 후에 되어진 讚歌, 즉 挽歌로 보는 見解가 있고, 한편 이 노래는 竹旨郎 生存時의 讚歌, 또는 思慕歌라고 보는 見解들이 있다. 그리하여 梁柱東님은 本歌는 孝昭王代 竹旨郎의 徒得鳥가 郎을 思慕하여 지은 노래다.¹⁴⁾라고 하여 郎의 生存할 때 되어진 것이라고 보았었고, 筆者는 이에 對하여, 「慕竹旨郎歌는 過去의 部下이었던 郎徒가 그때의 上典이던 花郎을 追慕하여 부른 것이다.」¹⁵⁾라고 竹旨郎이 他界한 후에 그의 무리이었던 得鳥가 郎의 人品과 行蹟을 追慕하는 心情에서 노래한 것이라고 하여 앞의 死後 讚歌라는 見解에 同調하여 왔다. 그리하여 이 노래의 뜻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지난날이 그리워 모든 것이야 우는 이 시름.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던 그 시절이 몇해인가 지났구나. 그런데 이 눈 내두를 사이에(잠간 동안에 님은 가셨읍니다) 그러나 곧 만나보게 되오리.(나도 당신 계신 곁으로 가게 되리라) 郎이시여! (당신) 그리는 마음에 가을길(장차 저승길을 가다가) 어느 제쯤 당신이 계신 다투쑈 마을에 잘 밤(安宿할밤) 있오리.

이렇게 풀이해 보면, 本歌의 1,2句는 지난날을 回想하는 것이고, 3,4句에서는 그의 回想의 對象이 되는 竹旨가 이미 老衰하여 죽어갔음을 恨하다가, 5,6句에 와서는 그러한 임과 내가 이제는 幽明을 달리하여 갈라졌지만, 머지않아 우리들은 또 만날 것이라는 願望으로 發展하였으며, 끝으로 7,8句에서는 나도 곧 임께서 가서 계신 다투마을, 즉(蓬萊의 洞壑) 그러한 天上仙界에 安宿할 것이라는 것이다.

13) 梁柱東: 古歌研究 p. 67.

14) 上揭書 p. 68.

15) 拙著: 鄉歌文學研究 p. 167, 1974, 宣明文化社,

이와같이 作者 得鳥는 生前에 자기에게 베풀어준, 竹旨郎의 따뜻한 恩顯을 못내 사모하여, 郎의 死後에까지도 그와 자리를 같이해서 돌보리라는 追慕의 情을 노래한 것인가 한다.

그런데 本歌를 이렇게 追慕의 노래로 보려하는 理由는 어렵다.

첫째, 「毛多居叱沙哭屋尸以憂音」이라 하여, 모든 것이 시름이라 운다는 것으로 郎을 그리는 마음을 말하였는데, 여기 특히 「哭」이라는 漢字로 울음을 表記한 데 一次로 注目할 必要가 있을 것 같다. 이때의 「哭」은 어떤 단순한 思慕의 情에서 나오는 울음이 아니라, 다시는 이 世上에서 만날 수 없는 亡人에 대한 哀痛의 울음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克史年數就音鹽支行齊」에 대하여는 生前의 老衰해가는 모양을 그린 것으로도 解할 수 있겠지만, 여기 「年數」란 말을 數年이란 말로 바꾸어서 몇해인가로 풀이할 수도 있겠고, 또 「鹽支行齊」라는 것도 「지나갔네」하는 것으로 解하기도 可能할 것 같다.

셋째는, 「蓬次叱巷」하는 文句에 대해서인데, 이에 대하여는 本歌를 輓歌로 보는 見解들 中에서도 각기 異見이 있는 듯하다. 趙芝薰님은 이것을 蒿里 즉 무덤으로 풀이하여

입그리는 마음이 입을 찾아 무덤가에 하룻밤을 새우리라.¹⁶⁾

라고 하였으며, 김선기님은

님을 그리는 마음 때문에 님의 뒤를 쫓아가자 하며, 어려운 길에서 이른바 風餐露宿하는 것도 각오하고 있겠습니다.¹⁷⁾

라 하여, 이 「蓬次叱巷」이란 말을 무덤이라든가, 또는 험하고 거처론 것이라는 뜻으로 解하고 있는데, 筆者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

먼저 여기 「蓬次叱巷」에서 「巷」은 「里」와도 同意인 것이니, 저 兜率歌의 作者인 月明이 居住하던 곳은 月明里이었는데, 이것을 月明巷이라고

16) 趙芝薰：新羅歌謠研究論攷，趙芝薰全集七，p. 90.

17) 김선기：現代文學 通卷 146.

도 하였다. 즉

月明巷 在金城南……處容每月夜歌舞於市 其歌舞處 後人名爲月明巷.¹⁸⁾

이라 한 것이 그것으로, 月明의 吹笛處이던 月明리나 處容이 歌舞하던 月明巷은 同一하다. 이렇게 巷은 里와도 같은 것이라 하면, 곧 이 巷字를 「구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里의 訓인 「마을」로도 읽을 수 있겠고 따라서 「蓬叱次巷」은 「다북ㅁ술」로 읽어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이 「巷」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宅名으로서 「巷叱宅」이란 것이 있다. 「三國遺事 卷一 辰韓條」에 依하면, 三十五개의 金入宅中에 橋南宅과 樓上宅과의 中間에 巷叱宅이란 것이 있는 것이다. 勿論 이것들은 다 신라에서 가장 富潤한 大宅들을 말한 것인데, 이 「巷叱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것도 또한 「ㅁ술ㅁ宅」이라고 읽으면 어떨까. 어떤 다리의 南쪽에 자리잡은 집이 橋南宅이요, 어떤 樓의 윗편에 位置한 宅이 樓上宅인데 대하여, 그 마을에서는 가장 中心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집이라는 뜻에서 「ㅁ술ㅁ宅」이라 한 것이 아닐까?

오늘에도 方言으로서 「마실간다」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잘 모이는 집으로 자주 마을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러 갈 때 쓰는 말이어서, 마치 오늘의 公衆集會所인 「마을會館」과도 비슷한 집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原來 이 「마을」이란 말은 「ㅁ술」에서 온 말이며 現在는 「마을」 또는 「물」로 殘存하고 또 한편 「마실」이라고 하여 地方에 따라 方言으로 使用되기도 하는데, 이것들의 말은 다 「ㅁ술」이란 말에서 그 根源을 가진 것인가 한다. 그러므로 「巷叱宅」은 「ㅁ술ㅁ宅」 또는 「ㅁ술ㅁ宅」으로 읽어서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竹旨郎이 生前에 居住하던 宅號는 「巷叱宅」이었고, 그가 死後에 幽宅을 자리한 곳은 이 다북쪽 우거진 마을의 어느 한 구석이었기에 노래에서는 「蓬叱次巷」 즉 「다북ㅁ술」이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推

18) 東京雜誌 卷二 古蹟.

理解 본다.

그리고 다시 이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라는 이 노래의 終句에 대하여 좀 想像을 더해보면, 여기 「蓬次叱巷」이란 말은, 위에서와 같이 竹旨가 生時에는 肉體的으로 살았었고, 死後에는 몸을 묻은 幽宅이 있는 곳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는 이미 精神上으로 볼 적에는 昇天하여 仙界인 蓬萊의 洞天으로 간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를 따르려는 得鳥나도 멀지않아 그가 安住하고 있는 天上世界에 가서 安宿하겠다는 祈願이 아닐까. 이렇게 「蓬次叱巷」이란 말이 蓬萊의 仙境이란 말과도 同一한 것이었다 하면, 이는 곧 仙花의인 表現이다 하겠는데, 그것은 竹旨가 花郎이었고 그를 追慕하는 得鳥가 역시 그의 郎徒이었기에, 이러한 仙花의인 用語를 使用한 것이라 하겠고, 다시 이 말에 숨은 뜻을 미륵의인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이는 곧 竹旨가 死後에 往生한 미륵淨土인 兜率天宮을 가리킨다고도 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 「잘 밤 있으리」라 하여 밤(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밤(夜)이란 말이 주는 意味가 또한 暗黑과 死를 가리킨 것이어서, 곧 死後天境엔 머무를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속뜻은 미륵淨土로의 上生念願이 깔려 있는 듯하다.

위에서 本歌의 內容에 대하여 풀이하고, 또 그에 대한 지나친 推理도 곁들이면서, 이 노래의 性格은 上述함과 같은 몇가지 理由에서 現生的이기보다는 空念的이요, 미륵의 信仰上에서는 下生の 化現이 아니고 上生の 지극한 念願이 노래해졌음을 보아왔다. 그리하여 本歌는 得鳥가 竹旨의 死後인 어느때(初)에 옛날의 上典을 追慕하여 읊은 輓歌의 性格이 보다 짙은 노래이라고 생각한다.

3. 彌勒說話와 本歌와의 關係

위에서 竹旨郎說話를 擧示하면서, 특히 이 說話의 後半部를 抽出하여 竹旨郎의 本生譚을 말하고, 그의 人物됨이 미륵의 化現이었음을 論하였는

데, 이것은 바로 彌勒의 下生信仰의 發露인 것이었다 하겠다. 原來 이 彌勒 보살에 있어서 下生이란 말은 上生이란 말과 相反되는 것으로, 元曉는 이 上生을 말하되,

國受用具 不待營作 隨念自然 故名爲天. 菩薩從人昇天 故曰上生.¹⁹⁾

이러하여, 미륵보살이 人間世界로부터 天界에 오르는 것을 上生이라 하고, 「天」이란 어떤 世界인가 하면, 일체의 生活上에서 受用하는 器具가 사람의 손이 가는 造作이 없어도, 그 생각하는데 따라서 自然히 이루어지는 곳을 「天」이라 한다 하였다, 미륵의 上生은 이런 것인데 대하여, 下生은 곧 「自天降世」하여 「從人昇天」의 反對가 된다. 말하자면, 下生은 하늘로부터 이 人間世上에 내려온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 竹旨郎이 이 世上에 誕生하기까지의 그 경위는 위의 說話에서 보다시피 미륵의 造立에 그 根據를 갖고 있는 바, 이 竹旨郎說話는 곧 미륵의 新羅的 下生說話라 하겠다. 金東旭님도

竹旨는 미륵의 化生으로 다루어 下生經에 依한 信仰을 나타내주고 있는 한편 前記 彌勒仙花와 아울러 花郎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花郎의 性格規定에 있어 三品氏의 研究와 더불어 佛敎的인 偏在를 示唆하는 것.²⁰⁾

이라고 한 바 있거니와, 이 竹旨郎說話는 곧 미륵보살이 耆頭末城의 大婆羅門主 妙梵의 妻 梵摩波提에 托生하여 크게 國土를 教化했다는 미륵下生經의 說話와 비슷하여, 곧 미륵說話라 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이렇게 竹旨郎說話는 미륵의 下生說話인데 對하여, 慕竹旨郎歌는 어떤가 하면 그 內容이 아주 上生的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노래를 풀이하면서 이미 言及하였거니와, 말하자면 說話에서는 미륵의 下生을 이야기하였는데, 노래에서는 미륵淨土로의 上生信仰이 高調되어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 노래는 竹旨의 死後에 되어진 追慕歌, 즉 輓歌이기 때문인 것이다. 換言하면, 說話는 竹旨의 出生을 말하는 本生譚이 초이었

19) 彌勒上生經宗要.

20) 金東旭: 韓國歌謠研究 p. 48, 1961, 乙酉文化社.

는데 대하여, 노래에서는 미륵化現의 竹旨郎이 世上을 떠난 후의 終焉를 그린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 미륵의 上生信仰이 說話로서도 傳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三國遺事 南月山 條에²¹⁾

金堂主彌勒尊像火光後記云 開元七年己未二月十五日 重阿浪全忘誠 爲亡考仁章 一吉干 亡妃(妣)觀肖里夫人 敬造甘山寺一所 石彌勒一軀 兼及愷元伊波……前妻古老里 後妻阿好里 兼庶族及漢一吉波……妹首昃買等 同營茲善 亡妣肖里夫人 古人成之東海 愷友邊散也.

이 說話에서 보면, 全忘誠이 甘山寺와 石彌勒 一軀를 받들어 만들었는데, 그 動機는 돌아간 자기의 父母를 위해서였다. 父母의 亡靈들로 하여금 미륵淨土로 往生케 하기 위한 追善的 行爲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보면, 人間 死後에의 淨土往生에는 이러한 미륵上生의인 것이 彌陀의 極樂往生 信仰과(例: 願往生歌) 더불어 新羅에서 共存하였음을 알게 하는 同時에 慕竹旨郎歌도 竹旨郎의 死後에 行한 追善的인 行爲로써 미륵의 上生信仰을 노래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이 竹旨郎說話와 本歌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것은 「初」字의 問題이다. 위의 後半部의 說話에서 보면, 먼저 初述宗公 爲朔州都督使…云云하여, 竹旨의 出生以前과 以後의 일들을 記하고, 다음은 또 初得鳥谷 慕郎而作歌曰 하고서 本歌를 擧示하고 있다. 여기서 「初」字를 처음으로 擧論한 이는 李能雨님이었는데, 그는 말하되, 「위 “初得鳥谷 慕郎而作歌”란 그 “初”라는 것을 노래 내용과 더불어 생각하여 必然 그가 拉致生活을 할 때라고 한탄하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그 노래는 바로 後日 자기를 구출케 한 魔力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노래의 내용은 극히 그런 希望이나 所望이나 呪願과는 無關한 오히려 失望의인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²⁾

이렇게 「初」의 뜻을 말하기도 했고, 金승찬님은 “以前”에 “前”으로 보기도 했지만, 이 「初」란 말은 時間에 대하여 쓰이는 말이지만, 꼭 모호한

21) 三國遺事 卷三 塔像第四.

22) 鄉歌의 魔力: 國文學論文選① p. 47, 1977, 民衆書館.

남이어서 꼭 어느 때라고 짐어서 말하기는 어렵다. 「처음에」「이전에」「그 동안」 過去の「어느때」 등으로 풀이는 되겠으나, 어느 一定한 時期를 指定하는 말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말이 가지는 本意는 現在性이나 未來格이 있지는 않고, 오직 過去性을 나타내주는 말인 것이다.

그래서 初述宗公……云云하는 것도, 「지난날의 어느때」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고, 初得鳥慕郎而作歌하는 말도 「지나간 어느때」 혹은 「이전 어느때」하는 것으로 溘然한 過去の 어느때를 말한 것이 된다. 그래서 初述宗公……云云의 說話에서는 竹旨郎을 中心으로 한 것이니까 그가 出生하기 以前の「어느때」하는 것이 되겠고, 得鳥가 慕郎而作歌할 적에는, 得鳥를 基準으로 하는 表現이니까 竹旨의 死後가 되어서, 곧 「지나간 어느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初述宗公……할 때의 「初」는 竹旨의 生前을 말하는 「初」요, 初得鳥谷慕郎而作歌할 적의 「初」는 竹旨의 死後를 表하는 「初」인 것이다.

이렇게 「初」라는 말이, 生前과 死後를 가름하는 「初」이었기에, 說話에서는 竹旨의 本生譚이 이야기해졌고, 노래에서는 竹旨死後의 安息處를 그리는 것이 되어서, 說話에는 米祿의 下生信仰이 底邊에 깔리었고, 노래에서는 米祿의 上生信仰이 高調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하겠다.

要컨대 이 竹旨郎說話와 慕竹旨郎歌와의 關係를 米祿信仰의 立地에서 考察하면, 說話는 米祿의 下生이요, 노래는 米祿의 上生을 읊은 것이다.

곧 竹旨郎이란 人物을 中心으로 하고 展開된 生과 死와의 循環倫理를 表述한 것이며 이러한 循環的 倫理觀念은 後代의 新羅의 花郎들게도 그 理念과 生活面에서 크나큰 影響을 주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結 語

위에서 筆者는 慕竹旨郎歌의 참뜻을 알아보기 위하여, 新羅時代의 花郎들과 密着한 米祿信仰을 擧示하고, 이와 竹旨郎說話를 中心으로 하여, 慕竹旨郎歌의 그 內容을 探索해 보았다.

다음은 위에서 論하여 온 結果를 要約해 본다.

먼저, 新羅의 花郎과 미륵信仰인데, 오늘의 이 미륵信仰은 一般的으로 各種佛敎의 信仰中에서 度外視하는 傾向이 있지만, 新羅에서는 이 信仰이 아주 지나칠 程度로 貴族化하여서, 王室과 花郎과 佛僧들에 依하는 重要한 一信仰이었다. 더구나 佛僧들 中에서도 月明같은 사람은 佛僧이면서 花郎이었다 하는 代表的인 新羅의 僧郎이었는데, 그의 미륵信心에 대한 영향은 當代의 花郎들에게도 널리 波及되어, 花郎과 이 미륵信仰과는 相互 不可分의 相關관계에 있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 미륵信仰의 內容은 上生信仰과 下生信仰으로 集約되는데, 이중에서도 신라의 花郎들은 主로 花郎은 곧 미륵의 化現이라는 下生信仰이 아주 支配的인 觀念이었다.

다음은 이러한 狀況下에서의 竹旨郎에 대해서인데, 이의 說話에서는 그의 父가 미륵一軀를 造立한 데서 竹旨가 人間으로 誕生케 되었다 하였는데 이는 미륵의 下生信仰이 그 背景을 이룩한 것이었고, 그를 追慕하여 지었다는 得鳥의 慕竹旨郎歌의 內容은 過去의 部下가 그의 上典이 죽은 후까지도, 同一한 安宿處에서 共存할 것을 祈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는 미륵淨土로의 上生信仰이 高調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끝으로 이 竹旨郎說話와 慕竹旨郎歌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說話는 竹旨의 生前에서부터 誕生후까지의 경위를 말하는 本生譚이 中心을 이루면서, 竹旨는 곧 미륵의 化現이다 하는 下生說話이었는데, 慕竹旨郎歌는 이러한 花郎이 다시 이 肉体를 버리고 昇天하여 미륵淨土로 上生한 것을 노래한 內容이었다.

이처럼 說話와 노래는 다같이 竹旨郎이라는 人物을 媒体로 하여, 新羅人의 生과 死에 대한 循環倫理를 보여주며, 한편 미륵의 上生과 下生이라는 全信仰을 들어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說話와 노래와의 相互관계는 이렇게 서로 全彌勒信仰으로 密着되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미륵說話를 背景으로 한 本 慕竹旨郎歌는 역시 竹旨의 死後 어느 때인가 得鳥가 郎을 追慕하는 恨과 願에서 읊은 것이어서 이의 性格은 輓歌의 性格을 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